

| | | | | | | |
|---|------------------------------|---|---------------|------|----|-------|
| | | | | | | I-D-2 |
| 제목 | 국문 | 일개 전문과목 개원의사들의 약가 인지수준에 따른 처방약품 선호도 차이 | | | | |
| | 영문 | Knowledge of drug price and preference for prescribed drugs among family physicians in Korea | | | | |
| 저자 및 소속 | 국문 | 이태진, 이훈재, 최영호 ¹ , 조희숙 ² , 배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가정의학과교실 ¹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 | | |
| | 영문 | Tae Jin Lee, Hun Jae Lee, Young Ho Choi ¹ , Heui Sug Jo ² , Sangsoo Bae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¹ ,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² , College of Medicine, Kangwon University | | | | |
| 분야 | 보건관리 [의료보장] | 발표자 | 이태진 [일반회원] | 발표형식 | 구연 | |
| 진행상황 |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31일 | | | | | |
| <p>1. 목적</p> <p>의사들의 약품 처방행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의사 처방행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임상적 적절성 및 의료기관별 사용현황의 차이 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 의사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개 의사의 인적특성, 교육 및 수련환경, 제약회사의 광고 등이 처방행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약가에 대한 인지 수준과 약품 선호도와와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약가에 대한 인지수준과 이에 따른 처방약품 선호도 차이를 의약분업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본 연구는 약품 처방에 있어서 자율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개원의사 중 다빈도 질환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2268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2001년 9월 21일에서 10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결과 280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어 주소불명자를 제외할때 유효응답율은 12.5%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개원의사들의 일반적 특성, 처방약품 선택 관련요인, 3가지 다빈도 질환 가상증례에 대한 모의 처방 및 의약분업 전후의 처방행태 변화, 해당 가상증례의 주치료제 성분구분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 인지여부 등이었다. 의사들의 약품 처방행태를 평가하기 위한 가상증례는 1가지 주치료제만으로도 적절한 관리가 기대될 수 있는 단순 고혈압, 하부요로감염, 관절통 환자로 구성하였다.</p> <p>3. 결과</p> <p>1) 3가지 가상증례의 주치료제로 제시된 각 6가지 성분명의 표준약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의 인지수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단순 고혈압의 주치료 약제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약품(Hydrochlorothiazide)과 가장 높은 약품(Losartan)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55.4%였다.</p> <p>나. 단순 하부요로감염의 주치료 약제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약품(Amoxicillin 또는 Sulfonamide/Trimethoprim)과 가장 높은 약품(Levofloxacin 또는 Ciprofloxacin)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58.5%였다.</p> <p>다. 단순 관절통의 주치료 약제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약품(Acetaminophen)과 가장 높은 약품(Celecoxib)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52.7%였다.</p> <p>라. 이상의 세가지 가상증례에 대해 가격이 가장 낮은 약품과 가장 높은 약품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27.7%에 불과하였다.</p> | | | | | | |

2) 세가지 가상증례에 대한 표준 처방약품의 상대가격에 대한 인지수준을 4 단계로 구분하여 각 가상증례에 대한 최저가 약품의 처방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순 고혈압에 대한 처방의 경우 의약분업 전후 모두 약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질수록 최저가 약품의 처방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p=0.2365$ vs. $p=0.3907$, Mantel-Haenszel trend test)

나. 단순 하부요로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에 있어서는 의약분업 전후 모두 약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질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저가 약품에 대한 처방율이 증가하였으며($p=0.0022$ vs. $p=0.0122$, Mantel-Haenszel trend test), 각 약품가격에 대한 인지수준 별 최저가 약품에 대한 처방율은 의약분업 이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단순 관절통에 대한 처방에 있어서는 의약분업 전후 모두 약가의 인지수준에 따라 최저가 약품의 처방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125$ vs. $p=0.6357$, Mantel-Haenszel trend test)

3) 조사대상 개원의들에서의 선호 의약품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는 의약분업 전의 경우 약효와 안전성, 수련당시 약품사용 경험, 개업의로서의 수익성 순으로 나타났으나, 의약분업 이후에 있어서는 약효와 안전성, 오리지널 상품,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약 순이었다.

4) 의약분업시행 이후 약가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3.2%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약품의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로는 '가급적 오리지널 약품이나 환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약품을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다.

5) 효과가 입증된 표준약제 중 현재 처방하고 있는 약품보다 저가의 약품에 대한 표준약제의 처방을 권고받을 경우 '따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4.5%였던 반면 '안 따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53.2%로 나타났다.

4. 고찰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개원의사들의 약가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과 약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개원의사들에서 저가 표준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원의들의 절반 이상에서 저가 표준약품의 사용권고에 따르지 않겠다고 응답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사들에 대한 약가 인지수준을 높일 경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저가약품의 처방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